



천국의 기쁨과 행복

395. 이 시대에는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천국에 대해 생각해 보는 사람들은 그 개념이 너무 막연하고 둔탁해서 거의 어떤 결론도 얻지 못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세로 들어온 영들에게서 그들이 천국과 천국의 기쁨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처럼 혼자 내버려두면 거기서 하던 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천국의 기쁨에 대한 이런 무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들이 사람의 자연적 차원에 속한 외적 기쁨을 바탕으로 유추하여 견해를 형성했기 때문이고 사람의 내면적 영적 차원이 무엇인지 모르므로 그 차원의 기쁨과 축복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영적이고 내적인 기쁨 안에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얘기해주었다 해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얘기가 그저 하나의 미지의 관념으로 들렸을 것이고 따라서 전혀 파악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의 외적 차원 즉 자연적 차원을 떠나 내적 즉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천국의 즐거움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며 외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내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더 순수하고 정묘하며 영(靈)의 차원, 즉 영혼의 차원인 사람의 내면을 감동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만으로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람의 즐거움이란 그의 영혼의 즐거움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으며, ‘육신의 쾌락’이라 불리는 몸의 즐거움은 천국의 즐거움과 아무 상관도 없다. 또 사람의 영혼에 담긴 것은 육신을 벗은 뒤 사후에도 그대로 남는다. 사람은 죽은 뒤에 영인(靈人)으로 살기 때문이다.

396. 모든 즐거움은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즐겁게 느끼기 때문이다. 즐거움에는 그 외의 다른 어떤 근원도 없다. 따라서 사랑의 본질이 즐거움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육적인 즐거움, 즉 육신의 즐거움은 모두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서 나온다. 따라서 그것은 모두 욕망과 그에 따른 쾌락이다. 반면 영적인 즐거움, 즉 영혼의 즐거움은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나온다. 따라서 그것은 모두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과 내적 만족감이다. 이 두 사랑은 그에 따른 즐거움과 함께 주께로부터 비롯되어 천국에서 나와서 내적으로, 즉 위로부터 흘러들어 내면을 감동시킨다. 반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은 그 즐거움과 함께 육신과 세상에서 비롯되어 외적으로, 즉 아래로부터 흘러들어 외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천국의 두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느껴진 정도만큼 영, 즉 영혼의 차원이자 세상 쪽에서 천국 쪽으로 향하는 차원인 내면은 열리고, 그 반면 세상의 두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느껴진 정도만큼 몸, 즉 육신에 속한 차원이자 천국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차원인 외면이 열린다. 모든 즐거움은 이미 말했듯 사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들고 받아들

여지면 그 사랑에 딸린 즐거움도 함께 들어오므로, 천국의 즐거움은 내면으로, 세상의 즐거움은 외면으로 흘러들어 온다.

397. 천국은 본질적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자체가 행복과 기쁨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천국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전체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천국을 만드는 것은 주의 신적 사랑에서 나오는 신적 선이기 때문이며, 신적 사랑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고 모든 사람이 가장 내적으로 온전히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열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국'이라고 하든지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든지 같은 말이 된다.

398. 천국의 기쁨은 형언할 수도 없고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육신적 차원의 즐거움에만 머무는 사람은 그 무수한 기쁨을 단 한 가지도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의 내면은, 바로 전에 말했듯 천국을 등진 채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뒤로 돌아서 있기 때문이다. 육신에 속한 즐거움에, 다시 말해 자기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은 명예, 이득, 육체, 감각이 주는 즐거움 외에는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즐거움은 천국에 속하는 내적 기쁨을 완전히 말살하고 질식시키므로 그 사람은 그런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믿지 못한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명예와 이익의 즐거움을 중요시하지 않게 되면 다른 즐거움을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리둥절해질 것이다. 더욱이 '그것 대신 받게 되는 천국의 기쁨은 무수히 많고, 주로 명예와 이득이 주는 즐거움인 육신의 즐거움에는 비할 수도 없이 뛰어나다'는 말에는 더 놀랄 것이다. 이상으로 왜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에 대해 모르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399. 천국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천국의 모든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앞에서 살펴봤듯이(268항), 천국에는 전체와 개인, 개인과 전체 사이에 함께 나눔이 있다. 그 나눔은 천국의 두 가지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듯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이며,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그 두 사랑의 본질이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바라시는 것이므로 자신의 것을 모두와 함께 나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사랑이 있다.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즐거움을 서로 나누는 것도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후에 설명하겠다. 이상의 내용은 이 두 사랑의 본질이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것임을 보여준다.

자기사랑과 세상사랑은 이와 다르다. 자기사랑은 자기 혼자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므로 다른 사람에게서 즐거움을 가져가고 빼앗아 자기 앞으로 돌린다. 한편 세상사랑은 이웃의 소유물이 자기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따라서 이 두 사랑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파괴한다. 만일 저기 일말의 나눠줌이 있다해도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랑의 본질은 타인의 기쁨이 자기와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은 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이란 없고 빼앗기만 하는 것이다.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주도적일 때 어떤 성격이 되는지 나는 생생한 경험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세상에 살 때 그 두 사랑에 젖어 있던 영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그때마다 예외 없이 내 기쁨이 줄어들고 사라졌다. 그런 영들이 어느 천국 공동체에 접근하면 그들이 가까이 온 정도 만큼 그

공동체 사람들의 기쁨이 줄어든다고 했다.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시사한다. 영혼의 상태는 육신을 벗기 전과 똑같기 때문이다. 특히 그런 영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나 좋은 것을 가지려하고 탐내며, 그것을 손에 넣는 만큼 즐거워한다. 이상 모든 것은 자기사랑과 세상사랑이 천국의 기쁨을 파괴하려 하는 것과, 그러므로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성격인 천국적 사랑에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400.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사랑과 세상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천국 공동체에 다가갈 때 느끼는 즐거움은 그들의 욕망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천국의 즐거움에 정반대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천국의 즐거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즐거움을 거둬가고 흐트러뜨림으로써 욕망의 즐거움을 느낀다. 만일 천국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거나 흐트러뜨릴 수 없을 때는 사정이 다르다. 그때 그들은 천국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 가까이 갈수록 그들 자신이 번뇌와 고통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가가려는 시도를 자주 하지 못한다. 이것도 허락하심에 따라 내가 되풀이한 경험인데 그중 일부를 덧붙이고자 한다.

(2)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 영들은 무엇보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바란다. 거의 모든 영들이 천국이란 곳은 단지 허락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곳이라 여겨 천국 가기를 갈망한다. 이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때로 가장 낮은 천국의 한 공동체에 데려간다. 그러면 자기사랑과 세상사랑 안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 천국의 첫 문턱에 다가가는 순간 즉시 내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고문당하는 것 같아 자기 속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느껴진다. 그 결과 그들은 머리를 아래로 하고 뛰어내리며,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숨을 돌린다.

(3) 또 그런 영들이 천국의 기쁨을 알고 싶어 하고 그 기쁨이 천사들 내면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나눠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아직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기 전의 영이 원하는 것은 그에게 유익이 될만한 것이면 모두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쁨이 전달되자마자 그들은 너무도 괴로워 그 고통으로 몸을 어떻게 뒤틀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된다. 나는 그들이 내적 고통으로 인해 머리를 발 쪽으로 숙이고 땅에 쓰러져 뱀처럼 몸을 꼬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자기사랑과 세상사랑의 즐거움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즐거움이 미치는 영향이다. 그 이유는 이 두 사랑이 천국의 사랑과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이며, 정반대끼리 작용하면 그런 고통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이때 천국의 즐거움이 내적으로 들어와 반대되는 즐거움 안으로 흘러 들어가므로, 반대되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내면은 거꾸로 뒤집히고 따라서 반대방향으로 뒤틀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생긴다.

(4) 그들이 서로 반대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이유 때문이다. 즉, 주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자기것을 모두 남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것이 그들의 기쁨인 반면, 자기사랑과 세상사랑은 남이 가진 것을 빼앗아 자기가 가지려 하고 그것에 성공하는 만큼 기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왜 지옥이 천국에서 분리되어 있는가를 말해준다. 그것은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자기사랑과 세상사랑으로 인해 육신의 즐거움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고, 반면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인해 영혼의 즐거움을 누린 사람들인 까닭이다. 그리고 양쪽 사랑이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분리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지옥의 영은 손가락 하나, 머리끝조차도 지옥 밖으로 내밀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심한 아픔과 고통이 엄습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내가 자주 목격한 일이다.

401. 자기사랑과 세상사랑에 젖은 사람은 육신 생활을 하는 동안, 이 두 사랑과 거기서 파생되는 특정한 쾌락으로 인한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 두 사랑이나 거기서 파생되는 선한 애정들로 인해 어떤 특별한 즐거운 느낌을 얻지 못하고, 단지 거의 지각되지 않는 행복감을 느낄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내면 속에 묻혀 있고 육신에 속한 외적 차원에 가려 있으며 세상 염려로 무더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에는 이런 상태들이 완전히 달라진다. 자기사랑과 세상사랑의 즐거움은 그때는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으로 변한다. 그 안에 우리가 지옥 불이라고 부르는 것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 즐거움은 또한 그들의 부정한 쾌락에 상응하는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변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쾌감을 준다.

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거의 지각되지 않던 행복감, 내면에 묻혀 있던 즐거움은 사후에는 겉으로 드러나고 또렷이 느껴진다. 그것이 그들 영혼의 즐거움이었고, 그들이 그때는 영적 차원에 있기 때문이다.

402. 천국의 모든 즐거움은 쓰임새 안에 모아져 있고 나타나 있다. 그것은 쓰임새가 천사들이 지닌 사랑과 이타심에서 비롯된 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천사는 그의 쓰임새에 맞게, 그가 쓰임새를 사랑하는 정도만큼 즐거움을 누린다. 천국의 모든 즐거움이 쓰임새에서 나온 즐거움임은 사람 몸의 오감(五感)에 비해보면 알 수 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는 각기 그 쓰임에 따른 고유한 즐거움이 있다. 시각에는 아름다움과 형태가, 청각에는 조화된 소리가, 후각에는 향기가, 미각에는 맛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 각각의 감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고찰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상응 원리를 알면 그 기능을 더 완전하게 알 수 있다. 시각에 고유한 즐

거움이 있는 것은 시각이 사고력, 즉 내적 시각에 공헌하기 때문이다. 청각에 고유한 즐거움이 있는 것은 청각은 주의집중을 통해 사고력과 의지 둘 다에 공헌하기 때문이다. 후각은 뇌와 폐에 작용하고 미각은 위장을 거쳐 간접적으로 온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 때문에 각기 고유한 즐거움이 있다. 촉각의 더 순수하고 정묘(精妙)한 즐거움인 결혼의 즐거움이 다른 모든 즐거움보다 뛰어난 이유는 그것이 인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천사의 증가에 공헌하는 쓰임새 때문이다. 그런 여러 가지 즐거움이 오감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모든 즐거움이 쓰임새 안에 있고 쓰임새에 달려 있는 곳인 천국이 그 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403. 이 세상에서 얻은 생각을 바탕으로 천국의 행복이 남의 섬김을 받는 한가한 생활에 있다고 여겨온 영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이 결코 일하지 않고 즐기는 데 있지 않음을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기가 가지려는 것이며 모두가 그렇게 바랄 경우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생활은 비활동적이고 나태하며 무기력에 빠지게 한다. 생활 속의 활동을 떠나서는 삶에 아무 행복이 없으며, 일을 쉬는 것은 오직 힘을 더 얻어 삶의 활동으로 돌아가는 것, 즉 재충전이 목적임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들에게 천사의 삶이 이웃사랑에서 나온 선한 일, 즉 유익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사들은 모든 행복을 일에서 찾고 얻으며 일하는 만큼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었다. 천국의 기쁨이 일하지 않는 삶과 한가하게 영원한 낙을 누리는데 있다고 굳게 믿은 사람들은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또 그들은 그런 삶이 지극히 우울하고 모든 기쁨이 사라진 삶이어서 얼마 안 가 싫증나고 혐오스러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404. 스스로 남보다 많이 배웠다고 여기면서 천국의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데 있으며 그것을 활동적인 삶이라 여겼었다고 말하는 영들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올바른 활동적 삶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며 그분의 뜻은 사람들이 맡은 일을 완수함으로써 이웃사랑의 선이라 불리는 유익한 일을 하는 데 있다는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웃사랑에서 나온 유익한 일을 천국의 기쁨에 대한 어떤 개념과도 연관짓지 못하고 단지 노예생활이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었다.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은 내적인 애정에서 비롯되고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이 수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것이라고 천사들이 증언해도 소용없었다.

405. 저 세상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은 누구에게나 똑같고 천국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 모두 무한한 종류와 다양성이 있으며, 결코 어떤 사람의 지옥이나 천국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지 않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나 영 또는 천사도 그 얼굴에 있어서조차 다른 이와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 내가 '서로 완전히 닮거나 똑같은 돌'이라는 생각만 떠올려도 천사들은 놀랐다. 그들은 말하기를 모든 개체는 수많은 구성요소의 조화로운 어우러짐으로 형성되며, 그 개체의 특성은 그 어우러짐의 특성에 달려 있다고 했다. 또 이것이 천국의 각 공동체가 한 개체가 되고 모든 공동체가 한 천국을 이루는 이치이고,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사랑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라고 했다.

천국 안의 쓰임새에도 이와 같이 모든 종류와 다양성이 있으며, 한 사람의 쓰임새가 다른 사람과 완전히 같거나 겹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한 사람의 행복도 다른 사람의 행복과 완전히 똑같지 않다. 뿐만 아니라, 각

쓰임새에는 무수한 즐거움이 있고 그 무수한 즐거움도 또한 다양하지만, 서로에게 공헌하도록 하는 원리로 하나되어 있다. 이는 마치 인체의 사지와 기관과 내장의 기능이 결합된 원리와 같고 각 사지, 기관, 내장의 섬유와 혈관들의 기능이 결합된 원리와는 더욱 흡사하다. 이 모든 것은 타자의 이익을 그 자신의 이익으로 여기도록 긴밀히 결합되어 있어 개체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개체를 위한다. 이 전체와 개체에의 공헌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다.

406. 방금 세상에서 도착한 몇 명의 영들과 영원한 삶의 상태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고 어떤 법칙으로 다스리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서도 한 나라에 가면 그곳의 왕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며 그 다스림이 어떤 체제인가, 또 그밖에 그 나라의 특수한 사항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하물며 그대들이 영원히 살 나라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들은 천국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과(그중 하나를 다스리는 분이 나머지도 다스리시므로), 지금 그대들이 들어와 있는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이고, 이 나라의 법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진리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법칙에 기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대들이 천사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들이 몸을 입고 살 때 이런 말을 듣긴 했지만 어떻게 천국에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과연 누가 이웃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모든 선함은 저 세상에서는 셀 수 없이 증가한다. 육신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상은 할

수 없다. 육신 차원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신을 벗으면 더 순수한 상태가 되고 마침내 천사같이 되어 이웃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천국에서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데 기쁨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남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면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웃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어서 나는 말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있다. 자기 짝을 위협에서 보호하려고 죽음을 무릅쓰는 부부의 사랑, 아이가 굶는 것을 보느니 자신이 굶는 편을 택하는 어머니의 경우와 같은 부모의 자녀 사랑, 친구를 위해 스스로 위협을 마다하지 않는 신실한 우정 등을 들 수 있다. 심지어는 신실한 우정을 흉내내려고 예의를 지키며 우정을 가장하는 사람들조차 상대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하고 마음은 다르지만 말로는 상대가 잘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본질에서, 즉 사랑의 기쁨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을 섬기는 것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육신 생활에서 재물이 목적이던 사람들, 특히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한다.’

407. 육신 생활에서 권력을 장악했고 저 세상에 가서도 지배욕이 여전히 강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런 말을 들었다. ‘그대는 이제 다른 나라에 와 있다. 이곳은 영원한 나라이고 지상에서의 그대의 지배는 끝났으며 그대는 이제 누구나 그의 선과 진리만큼만, 그리고 그의 세상 생활 여하에 따라 받는 주의 자비만큼만 존중받는 곳에 와 있다. 사람이 그 부유함과 왕에게 받는 총애에 따라 존중되는 것은 지상에서나 이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다. 다만 여기서는 선과 진리가 재산이고, 땅위에서의 생활 여하에 따라 받는 주의 자비가 왕의 총애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다른 나라

에 속해 있는 것이므로 누구나 반역자가 된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부끄러워
워했다.

408. 천국과 천국의 기쁨이 위대해지는 데 있다고 믿은 영들과 대화한
적이 있었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
이 가장 위대하다. 스스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능력과 지혜를
받고 받기 원하는 사람을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서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능력과 지혜로 뛰어
나기 때문이다. 가장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권력자가 권력을 통해서, 부자가 부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가
장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어서 나는 말했다. ‘천국은 위대해지려는 목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데
도 있지 않다. 그것은 결국 위대해지려는 의도와 같망이기 때문이다. 천국
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보다 더 바라는 데 있고, 또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그
들을 섬기는 데 있다.’

409. 천국의 기쁨 자체, 그 본질 그대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이
천사들 생명의 가장 내적인 차원에 속해 있고 거기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애정 속으로 흐르며 또 거기서 그들의 말과 행동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게
까지 흘러들기 때문이다. 그들의 내면이 활짝 열려 자유로이 즐거움과 기쁨
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가장 미세한 섬유에까지 전달되어 전신에 공급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쁨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지각되고 느
껴진다. 가장 내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거기서 파생된 모든 세부 안으

로 흘러 들어갈 때 외적 차원으로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직 천국에 올라가기 전 상태여서 그 기쁨을 모르는 선한 영들이 천사의 사랑의 영향권에서 그 기쁨의 느낌을 맛보면 황홀하여 정신을 잃는다. 이것은 천국 기쁨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410. 어떤 영들이 천국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 단계까지 천국 기쁨을 느껴보게 한다. 그러나 그 기쁨도 아직 천사의 기쁨은 아니며, 천사의 가장 낮은 단계에도 거의 이르기 어렵다. 그것은 거의 차갑다고 할 만큼 극히 미미한 기쁨이었는데도 그 영들은 그것이 가장 천국적이라고 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대한의 내적인 기쁨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면 천국의 기쁨에 단계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이에겐 가장 내적인 기쁨도 다른 이에겐 가장 외적이거나 중간 정도의 기쁨에 겨우 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자신에게 가장 내적이 되는 기쁨을 받으면 그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며 그보다 더 내적인 기쁨은 그에게 고통이 되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411. 악하지 않은 어떤 영들이 잠든 것 같은 휴면상태에 들어 그 내면이 천국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다. 영들의 내면이 열리기 전에 천국에 데려가 그곳의 행복에 대해 알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본 영들은 반 시간 정도 휴면상태에 들었다가 깨어나 이전의 외적 상태로 돌아온 후 거기서 본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들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있었으며 경이로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 그것이 전부 금은보석으로 된 듯이 찬란했고 정교했으며 엄청나게 다양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천사들이 그런 외적인 것 자체에는 즐거움을 두지 않고 그것에 상응하는 것, 즉 거룩하고 형용할 수 없는 지혜에 속한 무한한 것들에서 즐거움을 느꼈으며 그

런 것이 천사들의 기쁨이더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그밖에 그들이 본 많은 것들도 사람의 언어로는 그 만 분의 일도 표현할 수 없고, 한다고 해도 물질적 개념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412. 사람들은 거의 누구나 천국의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저 세상에 들어간다. 그들이 내적 기쁨을 단지 육신과 세상의 기쁨으로만 유추했기 때문에 내적 기쁨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육신과 세상의 기쁨은 내적 기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품이 선한 영들에게 천국 기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낙원 같은 경치로 인도한다. 그러면 그 영들은 자기가 하늘 낙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그것이 참된 천국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 다음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이 느낄 수 있는 내적 기쁨의 상태에 들어가 보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평화의 상태를 맛보게 하는데, 그들은 그중 어떠한 것도 표현할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끝으로 그들은 가장 내적인 감각에 이르기까지 순진함의 상태에 들어가 보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참으로 영적이고 천국적인 선이 어떤 것인지 배운다.

413. 그러나 내 경우는 천국과 천국 기쁨의 본질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자주, 오랫동안 천국의 기쁨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셨다. 비록 생생한 경험으로 그 기쁨을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얘기하겠다. 천국의 기쁨은 무수한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하는 대체적인 감정인데, 이 대체적 감정 안에는 또 무수한 감정들이 조화롭게 들어 있지

만 사람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각할 수는 없고 어렵듯하게만 지각할 수 있다. 지각이란 것이 극히 대체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안에 무수한 것이 형언할 수 없는 질서에 맞추어 들어 있음을 지각하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다. 그 무수한 것은 본질적으로 천국의 질서에서 유입되는 것이고 또 그 질서는 감정의 극히 미세한 데까지 이르는데, 이것은 지각하는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지각된다. 한마디로 말해 각각 대체적 감정 안에는 무한히 많은 감정들이 가장 질서에 맞는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도 생생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또 모든 것을 가장 내적 차원에서 감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 천국의 기쁨이 가장 내적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 내가 알게 된 것은, 천국의 기쁨과 황홀함은 나의 심장에서 출발한 듯 느껴지고 거기서 가장 내적인 기쁨의 느낌이 나의 모든 내적인 섬유로 섬세하게 퍼져나가 섬유 다발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때는 마치 섬유가 기쁨과 황홀함 자체인 것 같고 내가 지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희열에 넘쳐 살아 있는 것 같다. 그 기쁨에 비하면 육신의 쾌락이 주는 기쁨은 맑고 부드러운 산들바람과 비교한 거칠고 불쾌한 흙먼지와 같다.

내가 내 모든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했을 때 그 대신 더 깊고 풍성한 기쁨이 끊임없이 흘러들어 오는 것을 느꼈다. 더 많이 주려고 할수록 더 많이 흘러들어 왔다. 나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직감했다.

414. 천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삶의 청춘을 향해 나아간다. 수천 년 더 살수록 그만큼 더 기쁘고 행복한 청춘이 된다. 이것이 그들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신앙의 성장 정도에 맞추어 영원히 더해간다. 나이 들어 늙고 쇠약해져 세상을 뜬 여성들도, 만일 그들이 주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며 한

남편과 행복한 결혼에 안에 살았으면, 천국에서 세월이 갈수록 꽃다운 젊음과 청년 초기로 변하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미의 개념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더해간다. 그들의 선함과 이웃사랑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그 자체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들 얼굴의 미세한 부분에서까지 이웃사랑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빛처럼 뿜어 나오며, 그들은 이웃사랑의 모습 그 자체이다. 이 모습을 본 어떤 이들은 너무 감탄하여 충격을 느끼기도 했다.

천국에서 보이는 이웃사랑의 모습은 살아 있는 형상이며, 이웃사랑이 그 형상을 만드는 주체인 동시에 바로 그 만들어진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전신이 이웃사랑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얼굴이 그렇다. 이것은 분명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모습이다. 그 모습을 눈으로 보면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마음의 가장 깊은 내부를 이웃사랑으로 감화한다.

한마디로, 천국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젊어지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 사람은 저 세상에 가면 확실히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 천국을 이루고 있는 천사들은 모두 그런 모습이며, 그 모습이 한없이 다양하다.